목재문화체험으로 감성 힐링

장수군, 방화동 목재문화체험장 본격 운영… 전시관·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진행

전체 면적의 75%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진 청정 장수군의 목재문화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방화동 목재문화체험장이 방역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체 면적의 75%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진 청정 장수군의 목재문화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방화동 목재문화체험장이 방역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9일 군에 따르면 장수 방화동 목재문화체험장은 지난 2015년 방화동 가족휴양촌 내 1,382㎡ 규모에 지상 2층 목재문화체험장 전시동과 202㎡ 규모의 다문화동 5동 등이 들어서 있다.

목재문화전시관에는 목재의 문화와 가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수와 목재', '산림과 목재' 등이 전시돼 있으며 관람객 및 주민, 청소년 등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유아, 청소년,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공룡인형, 시계, 책꽂이, 편백도마 만들기 등 21종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방화동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시간은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환기 소독 및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한 가운데 운영된다.

이번 방화동 문재문화체험장 운영을 통해 군은 목재가 인간에게 주는 정신적·신체적 안정 효과와 창의성 증진 및 우리 목재문화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문민섭 산림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지친 방문객들에게 천혜자연의 방화동자연휴양림을 알림과 동시에 감성적 힐링을 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목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하세요"

진안군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을 이번 달 30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 중 4월 1일 기준 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진안군 대상자는 2,258농가이며 전체 직불금 수령자 5,414명 중 42%에 달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중앙회진안군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30만원씩 지급된다.

이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하지만 선불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일과 관계없이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바우처는 공고지침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신청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산림청)등과 중복해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소관 50만원 지급)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 중 20만원만 지급된다.

대상자의 승계자, 승계 예정자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대부 활용 가능 유휴재산 공개

진안군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경작 등 대부 활용이 가능한 683필지(25만8,000㎡) 유휴재산에 대해 지난 9일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휴재산이란 공유재산 중 미활용 재산으로서 지난 2019년부터 연 2회 군민들에게 공공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대부 희망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군은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 있는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당 토지 읍·면 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대부계약 체결 등의 민원상담이 상시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유휴재산 대부를 통해 경작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연간 1,37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군은 2018~2020년까지 연속 3년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총 9,800만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현장중심형 실태조사 및 전문기관 위탁용역으로 무단 점·사용, 불법시설물, 전대행위 등에 계약취소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하였고, 무단 점·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186건(952만1,000원) 부과·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23일까지 334농가 한우 8028두·염소 871두 대상

무주군은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시기가 다가 온 소와 염소 등 가축에 대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예방접종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로 334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 8,028두, 염소 871두가 대상이다.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은 우제류 가축(소, 염소 등)에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매년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군은 수의사 2명이 참여한 2개 반 6명으로 구성된 예방접종반을 편성하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접종은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2주 이내에 도축 출하 예정인 가축은 제외된다. 임신 가축은 유사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지 위해 3~7개월의 접종 간격을 준수할 경우 접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자가 접종이 어려운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와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는 기존처럼 공수의를 통해 무상 접종 지원에 나서며, 50두 이상 전업농가의 경우 자가 접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백신은 2~8도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하고 사용 30분전 20~25도로 따뜻하게 데워 잘 흔든 뒤 사용해야 하며 개봉 후에는 24시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백신접종 후, 부작용이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완화제를 제공할 방침이다. 군은 축산물 이력시스템을 통한 접종 결과를 입력하고 있으며, 자가 접종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관리에 철저히 기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 마리라도 접종 누락으로 구제역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접종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무주군은 총 15만3,009필지(2021년 1월 1일 기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4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군청 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누리집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전북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박금규 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며 "제출된 의견서를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 후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원예 산업 종합계획 이행실적 평가 '1위'

무주군이 농림부에서 시행한 2021년 원예 산업 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국 100개 시·군 가운데 1위(총점102.58점)를 차지한 것으로 이로써 통합마케팅조직인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운영비 30억원(무이자 융자)을 추가 지원받고 산지 관련사업 우선 선정의 기회를 확보했다.

무주군은 이행노력과 생산, 유통에 관련된 6개 세부 지표(이행점검, 거버넌스, 기초생산자조직육성, 조직화 출하, 통합마케팅 확대, 참여조직 참여도) 달성도를 평가한 것에서 이행점검과 거버넌스 분야에서 만점을 받고 GAP인증 분야에서는 가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통합마케팅조직인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과 참여농협인 무주농협, 구천동농협의 적극적인 농산물 유통 조직화와 취급량 증대 노력이 무주군의 저력을 보여주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원예 산업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부정책과의 효율적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의회,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무주군의회가 지난 9일 의장실에서 2020 회계연도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 위원은 행정에 대한 폭 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직 군의원·공무원 출신의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군의회 이해양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았다.

위원들은 9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25일 동안 세입·세출의 적정성, 불용예산 또는 예산낭비 사례 여부 등 2020 회계연도 무주군 예산집행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이해양 대표위원은 "합리적인 재정운용 관리를 이끌어내어 생산적인 예산집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